

광주경찰 또 음주운전, 올해 벌써 네 번째

‘면허 취소수치’ 만취운전하다 추돌사고 잇단 감찰에도 또 내부 음주 일탈 ‘얼룩’

광주에서 또 다시 현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연초 직무 감찰까지 펼쳐졌지만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 도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부서 형사과 A(52)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감은 전날 오후 9시20분께 서구 풍암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경감은 접촉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감을 우선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서부경찰은 소속 경찰관인 A경감 사건을 내규에 따라, 북부경찰서로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올해 잇단 경찰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서부서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이 펼쳐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을 비롯해 올해 들어 광주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4건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한 달에 1번 꼴이다.

지난달 1일에는 서부경찰 금호지구대 소속 B경위

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단독사고를 내 적발됐다.

앞선 2월2일에도 서부경찰 소속 C경위가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달미를 잡혔다.

새해 벽두였던 올 1월2일에는 북부경찰 모 지구대 소속 D경위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은 앞선 직원 음주운전 적발로, 이미 경찰청 차원의 감찰을 받았다. 최근에는 광주경찰청 차원의 일선서 복무 행태 집중 감찰도 진행됐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 비위로 얼룩졌다.

경찰관 노조 격인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달 8일 “조직과 동료 보호 차원에서 음주금지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자정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희면기자



나주경찰,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 남평파출소는 4일 오전 남평읍 지석로 95 남평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등곳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순천경찰, 2024 치안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 보고회 실시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지난 3일 서장, 과장, 계 팀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치안성과 및 고객만족도 향상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진도소방, 맞춤형 눈높이 소방안전교육 업무협약(MOU) 체결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지난 1일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여수소방서 의용소방대,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센터장 황신욱)는 지난 3월 23일부터 1일까지 약 1주간 봄철 산림화재 예방을 위한 의용소방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여수=기동채본부



곡성소방, 오산면 의용소방대 부주의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1일 곡성군 오산면 의용소방대에서 화재발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부주의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담양소방, 봄철 캠핑장 각종 안전사고 안전지도 나서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야영객 및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연루 유치원장·공무원 등 5명 징역형

사립유치원 매입·공립 전환 사업 선정 비위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 자료 등 교육청 내

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을 바라는 유치원 원장 B·C씨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당시 현직이던 최영환 전 시의원에게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업 관련 평가 기준 등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이었던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입비를 더 받고자 거듭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유치원 내 운영위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직 교육청 간부공무원이었던 D씨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 문건 촬영 사진을 평소 친분이 있는 E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취지이나, 이들의 비위 의혹이 들어난 단초였던 회의록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잡음과 논란 끝에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이다. A씨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사업에 선정되길 원하는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대상 청탁과 내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수사 개시 직후 17개월간 해외 도피·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2월6일 자진 귀국 뒤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첫 재판은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원을 받아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슬비기자



‘내 1시간 노동의 가치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장바구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람 몸에 붙어 흡혈’ 봄철 진드기 주의...“뚫자리 사용을”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진드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봄철 야외활동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봄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매개하는 참진드기가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참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11월에 주로 발생한다.

참진드기는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며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가면 달라붙어 흡혈하는 특성이 있다.

또 참진드기에 물린 부위는 가슴과 복부 등 몸통 38.9%, 다리와 발 35.7%, 얼굴과 목 15.1%, 팔과 손 10.3% 순이며 두피, 귀, 겨드랑이와 발가락 사이 등 확인이 쉽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 야외활동 후에는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사람이나 동물에 붙으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 장시간 흡혈하며, 무리하게 떼어낼 경우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다.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드기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제거된 참진드기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결과는 1~2일 내 확인할 수 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드기에 물린 후 약 14일 정도는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참진드기 물림으로 신고·의뢰된 180여건에 대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결과, 해당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야외활동을 할 때 정비되지 않은 초지·잡목림에는 들어가지 않고 풀밭에서는 뚫자리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